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9 "우리도 함께 뛴다"

1km 뛸 때마다 1,000원 기부

조선대병원 달리기동호회

조선대병원 달리기동호회 회원들이 병원 앞에서 체력 훈련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달리면서 건강도 챙기고, 어려운 이웃도 챙깁니다."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수) 달리기동호회(회장 국중이)는 지난 1999년 회원의 건강과 우의를 도모해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교직원들이 모여 평소 함께 훈련을 하며, 각종대회에 참가하는 등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각종 대회 및 울트라마라톤, 철인경기에 참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체력 다지며 '이웃사랑'

특히 회원들은 대회에 참가해 1km씩 뛸 때마다 1천원씩을 기부해 1년간 모은 돈을 매해 12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도 벌이고 있다. 달리면서 본인의 건강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달리기 동호회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모든 회원들이 달리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2009년도 레이스에 들어간다.

여자회원들 중 박혜숙 간호사는 100Km 울트라마라톤을, 장영아 재활치료사는 철인경기를 완주했다. 또한 가족 같은 분위기 탓에 김영욱(64)·김재완(60)·심삼섭(61) 회원 등 정년 퇴임 이후에도 꾸준히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배려심 가지고 환자 돌봐

국중이(49·진료행정팀장) 달리기동호회장은 "같은 취미의 사람들이 모여 훈련도 함께하고 각종 대회도 참가하다 보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보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구성원이 건강해야 환자분들이 믿고 찾아온다는 생각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수 조선대병원장은 "달리기동호회와 같이 활발한 동호회 활동은 직종 간,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 전체 구성원의 화합에 기여해 결국에는 병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달리기동호회는 대회 마다 병원을 알리고, 불우이웃을 돕는 등 타 동호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애향심 불타는 '화순 홍보대사'

화순마라톤 클럽

화순마라톤클럽회원들이 '고인돌의 고장' 화순을 대표해 3·1 마라톤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 사랑, 화순 사랑을 외치며 달린다."

'고인돌의 고장' 화순을 대표하는 화순마라톤 클럽이 3·1 마라톤대회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1년 건강을 지키고 화순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화순마라톤클럽은 회원들 간의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즐거운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연습시간에는 모두 진지한 프로가 된다. 회원들은 매주 한 차례 함께 화순공설 운동장을 돌고, 너릿재 등지를 달리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끈끈한 정으로 회원 단합

50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화순마라톤클럽은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 화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들은 또 매년 '화순 고인돌 마라톤대회'를 주관해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화순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고향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쓰레기를 청소하고, 대회 코스 구간에 나무를 심으며 건강과 애향심을 함께 키우고 있다.

회원들은 등산과 야유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건강은 물론 가족간의 사랑도 챙길 수 있는 게 화순마라톤클럽의 장점이다.

유애경씨 상위권 입상 목표

팀의 총무를 맡고 있는 유애경(여·48)씨는 이번 대회에 남편인 정성구(49)씨와 함께 출사표를 던졌다. 유애경 씨는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마라톤이 즐겁다"며 "이번 대회에 30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영일(55) 회장은 "꾸준한 훈련으로 회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면서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화순 마라톤의 위상을 세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리면 암도 극복한다'고 외치는 화순마라톤클럽 회원들은 3월1일 신명나는 질주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1절 전국 마라톤 빛낸다 '주이코유저클럽' 사진동호회

"달리는 당신… 추억 담아 드려요"

"마라톤,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사진동호회 '주이코유저클럽'이 3·1 마라톤 대회의 생생한 현장 포착을 위해 나선다. 〈사진〉

주이코유저클럽은 올림푸스 주이코렌즈를 사용하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모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30대 직장인들이 중심이 돼 20여명의 회원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클럽은 다른 사진 동호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날때마다 출사를 나가 전국 각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동호회와 다른 특별함이 있다. 주이코유저클럽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진사랑'을 '이웃사랑'으로 까지 키워나가고 있다.

사진을 통한 이웃사랑을 고민하던 이들은 지난해 영정 사진 봉사활동을 펼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고 액자까지 만들어 드렸다. 3·1 마라톤 대회 도우미로 나서 특별한 경험도 했다.

3·1 마라톤 대회 사진 봉사활동에 나선 15명의 회원들은 광주월드컵경기장과 대회 코스 곳곳을 지키며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참가자들과 대회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회원들은 이날 적게는 500장에서 많게는 1천 장의 사진을 찍어 대회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사진을 제공해줬다.

쌀쌀한 3월 날씨와 배고픔과 씨름 하느라 고생을 했지만 회원들은 더 큰 보람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재언 회장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담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특히 완주한 분들에게 월계관을 씌우고 기념 촬영을 할 때 내 스스로가 완주를 한 것 같이 기분이 좋았었다"며 "3·1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우리 지역의 뜨거운 마라톤 열기와 마라톤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정하게 뛰던 노부부의 모습도 회원들에게는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있다.

3·1 마라톤 대회를 통해 사람들의 열정을 만끽했던 주이코유저클럽은 이번 대회에 또 다시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생생한 삶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이들의 열정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울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일 오전 투수 서재응이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가을잔치 향해…" 한마음 훈련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가을잔치'를 위해 77년생 동갑내기들이 의기투합했다.

2008시즌 4강 탈락의 아픔을 겪었던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미야자키에 캠프를 꾸리고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훈련을 하는 장소도 같고, 주축 선수들도 그대로지만 오쿠라가하마 구장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전혀 딴판이다. 캠프를 지켜보는 코칭스태프는 물론 선수들도 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긴장감만 가득하던 캠프에는 선수들의 파이팅이 넘치고, 고된 훈련에도 선수들 표정은 더 밝아졌다. 비결은 77년생 선수들에게 있다.

KIA 안방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훈과 '마운드의 핵' 서재응은 77년 동갑내기. 충장중과 광주일고에서 함께 야구를 한 단짝 친구 김상훈과 서재응은 전지훈련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올 시즌 주장이 된 김상훈은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 포수 마스크를 쓰고 또 방망이를 휘두른다. 카리스마 넘치는 주장은 쉬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선수단을 배꼽 잡게 만드는 익살쟁이로 변신, 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훈련하느라 주장 역할을 하느라 고단한 김상훈은 매일 아침 서너개의 알람시계와 씨름해야하지만 묵묵히 훈련에 따라주는 후배들이 고맙다.

서재응·김상훈 분위기 메이커

후배 다독이며 시즌 준비 '박차'

서재응도 쉴 틈이 없다. 지난 가을 부터 10승을 향한 서재응의 움직임은 분주했었다. 김상훈 그리고 또 다른 동갑내기 채종범과 마무리 캠프에서 노장의 힘을 과시했던 서재응은 전지훈련에서도 바쁜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지훈련 당시 서재응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따로 재활 훈련을 해야 했다. 하지만 19일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70개의 공을 던지며 구질 점검에 나서는 등 올해는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김상훈, 서재응 외에도 채종범과 장성호도 77년생 사단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코칭스태프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채종범은 거침없는 상승세로 올 시즌 전망을 밝히고 있다.

장성호는 지난해 팀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상 때문에 전지훈련에서 나홀로 행보를 하며 마음 고생을 했었다.

올해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마음 고생을 했다. 장성호는 지난 15일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훈련 도중 급히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증상이 호전되자 이틀 만에 다시 캠프로 돌아와 훈련을 재개하는 열성을 보였다.

여기에 이종범·이대진 등 최고참 선수들까지 후배들에 뒤지지 않는 열정과 체력을 과시하면서 팀 4강을 향한 분위기가 벌써부터 무르익어가고 있다. / wool@kwangju.co.kr